

“국민의힘은 ‘아특별법 개정안’ 즉시 상정하라”

광주시의회-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 조속 처리 촉구 “논의 거부하는 광주시민 기만... 대화·타협으로 해결을”

광주시의회와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광주예총)가 24일 국민의힘이 ‘판지’를 걸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일동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안전 상정을 거부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국회 문화예술평안심사 소위원회가 파행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용 문제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고 본래 법안이었던 것을 국가 기관으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문화전당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서 추진된 국책 사업으로 현재 국가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 소요 비용은 거의 없으며 비용 추계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호남 동행을 외쳤던 주장이 ‘정치적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판지를 걸지 말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며 “발표 접기는 법안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려는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구을) 의원은 문화전당 조직 통합·조정, 문화도시 사업 유출기한 2031년까지 연장, 정부 소속 기관으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아특별 개정안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정부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2021년부터 법인화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의 취지다.

광주예총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즉시 아특별 개정안을 상정하라”며 “국민의 힘은 아특별 개정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공존공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단체나 법인에 완전히 위탁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아특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당은 국가소속 기관 지위를 상실하며 법인이 운영되는 기관으로 전락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 의원들이 24일 오전 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특별에 대해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문화전당의 정상화를 고대하는 광주시민들의 기대마저 배반하고 있다”며 “문화전당이 당초계획보다 5년 늦게 개관한 것은 당시 조성 사업을 축소·왜곡, 폄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격적인 법인화 시도로부터 촉발됐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와 광주진보연대, 광주민예총,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상실현네트워크,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족운동연합회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25일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아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 재난안전산업 미래전략 세운다

내일 재난안전 미래전략 컨퍼런스 정책 개발·네트워크 구축

광주시가 재난안전산업 미래 전략 세우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26일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제2회 재난안전산업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뉴노멀 시대와 재난안전산업,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현장 컨퍼런스와 동시에 시 공식 유튜브(빛뷰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는 강현욱 전남대학교 교수의 ‘AI와 안전산업, 지역의 도전과 발전방향’, 김성학 시 안전정책관의 ‘광주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정책방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의 한국형 그린뉴딜과 안전 D.N.A ▲박기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의 산불재난 스마트 예측, 예방 및 대응기술 ▲신동준 KT 융합사업본부 차장의 KT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사업 추진 동향 ▲이용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단장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재난안전 기술발전 방향 등이 소개된다.

해당 세션에서는 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재난안전산업과 4차산업의 다양한 융합사례를 공유하고, 광주시가 직면한 안전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등 재난안전산업의 미래전략과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민곤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선제적으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 재난안전산업 D.N.A.(Data, Network,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안전 신산업 육성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재난안전산업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민선 7기 안전분야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관련조례 제정, 전략기획단 구성, 국비사업 유치, 방재대학원 개설 대학 지원,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신기술 공모전 개최 등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그린뉴딜 정책자문관에 이윤진 이사 위촉

광주시는 24일 이윤진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를 그린 뉴딜 총괄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자문관은 광주시 에너지 신산업 정책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자문을 통해 해법을 찾게 된다.

이 이사는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 철수에 따른 한

경오염과 피해 사례를 목격한 뒤 2000년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환경운동 전문가다.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함께 ‘넷제로(Net-Zero) 전환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21일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하고 ‘2045년 에너지자립 도시’ 실현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24일 전남도의회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전남도의회 촉구 결의대회 “정부·국회 개정안 통과 전력을”

전남도의회는 2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한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

다”고 했다.

구복규·김성일 부의장도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라며 “지방분권의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경선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20대 국회 인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일부 수정·보완, 재발의 돼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며 “주민참여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원칙 정립, 지방의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지방 자치, 분권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